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친구를 사귈 땐 이익을 추구 말라.
이익을 추구하면 의리가 상하게 된다.
순수한 생각으로 오래 교우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0월 13일)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사유에 빠진 오묘한 미소"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반가사유상(제78 · 83호)이 보이는 신비하고 오묘한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선사한다. 해외 유명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이 전 세계 전해지는 70여 점의 반가사유상 중 한국의 국보 반가사유상을 최고로 꼽는 이유도 그 조형미와 예술성이 단연 압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두 반가사유상을 한 곳에서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실제, 그동안 두 점의 반가사유상이 한 공간에서 전시된 것은 1986, 2004, 2015년 단 3회뿐이다. 이제는 '한국의 미소'로 대변되는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전용 전시 공간에서 항상 만날 수 있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11월 12일부터 상설전시관 2층에 전시실 '사유의 방'을 개관하고, 대표 소장품인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함께 전시한다. 기존 관람 동선에서 과감히 벗어나 상설전시관 2층에 439㎡ 규모로 마련된 새 전시실의 이름은 '사유의 방'이다. 전시실 입구부터 출구까지 모든 공간은 '사유의 여정'을 체험할 수 있는 장치들로 채워졌다. 늦가을, 두루 헤아리며 생각에 잠긴 반가사유상처럼 '사유의 여정'을 떠나보길. **글=신성민 기자,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협의기구 생략된 '법인법' 개정 결국 철회

조계종 총무원, 속개한 중앙종회서 개정안 철회

24조 2항 개정 절차규정
미이행 입법예고에 '논란'
종책 질의서도 문제 제기
추후 보완해 재 상정키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등록 법인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종단 차원에서 이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법 개정시 협의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해당 절차를 생략한 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상 하자로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것이다.

11월 10일 속개한 222차 중앙 종회에서 기획실장 삼혜 스님은 개정취지 설명에 앞서, "개정안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스님들의 이견이 있어 이를 반영해 법안을 철회한 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총무부장은 이 법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설치해 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총무부는 법으로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9월 29일 법인법 일부개정안을 종단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해 논란이 일었다. 종회에 앞서 법인법 개정안을 심사한 법제분과위원회 회의 및 연석회의에서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가 재차 언급됐다.

법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홈페이지 게재일로부터 15일이 지난 10월 14일까지였지만, 기간 중 이를 인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지 취재 결과 등록법인 대다수가 해당 법안이 입법예고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일부 법인의 경우 "개정 취지를 떠나 개정 절차에서 법인과의 소통이 전무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승려법인으로 종단에 등록된 A사단법인 관계자는 "우리 법인은 사회법적으로 이미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 지자체 정기감사나 정기보고 등을 통해 점검되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종단이 조사를 하고 시행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각 법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효율적인 개정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총무원이 일체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시도한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시 협의기구를 설치해 법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제24조 2항은 2014년 법인법 제정 당시, 일부 법인들을 중심으로 종단 등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법인이 과도한 제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종단과 법인 간의 불필요한 오해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대해 사찰보유법인 B 이사장은 "법에 규정된 협의기구를 만들기 위한 시도나 노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법인법 개정안은 개정취지를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종단과 등록법인과의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전무한 현실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와 관련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은 종책질의를 통해 "법인법의 협의기구 절차에 관한 조항은 법이 성안된 당시 많은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 시에는 법인의 의견을 물어 신중히 진행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며 절차상 하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총무국장 원묵 스님은 "협의기구 설립 조항 미이행이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게 된 이유"라며 "개정취지와는 별개로, 절차적으로 법인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있었다.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긴 했지만 법으로 규정된 절차인 협의기구는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2면〉

건학위로 뭉친 東大, 대학평가 9위 달성

중앙일보 10일 평가 결과 발표…역대 최고 순위

연구 경쟁력 등 두각보여
사상 첫 톱 10 진입 '쾌거'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동국대는 11월 10일 발표된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이전(2019년, 2020년 미실시)보다 8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순위인 9위를 기록했다.

동국대는 △학생교육 부문 5위(이전 8위) △교수연구 12위(이전 27위) △평판도 13위(이전 16위) 등 여러 분야에서 고른 순위상승을 보이며 사상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17위에 머물렀던 동국대는 2019년부터 시작한 'Energize Dongguk'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중심 대학으로 거듭났다. 동국대는 교수연구 부문에서 이전보다 순위가 15계단이나 대폭 상승했고, 이는 종합순위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11위 △과학기술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 27위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 14위 △교수당 교내연구비 26위 등 교수연구 부문 모든 세부지표에서 고르게 약진하며 12위에 올랐다. 학생교육 부문에서 약진도 눈에 띈다. 이 부문에서 동국대는 80점 만점에 54.78점을 획득해 5위를 기록했다. 취업률 부문에서도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이 같은 노력 뒤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건학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올해 4월 출범한 건학위원회는 △건학이념 구현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 △동국인의 원력 결집과 실천을 통한 동국 발전 △미래의 교육과 의료를 선도하는 건학 불사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교육보국'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대학의 기본인 '교육' 자체에 집중했다"면서 "지난 4월 출범한 건학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올해를 제2건학의 원년으로 삼고 'Energize Dongguk'을 넘어, 'Globalize Dongguk'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백만원력결집불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함께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NAVER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동참문의 정기후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02-6273-0108~9

대한불교조계종